

성모님께서 주신 8월 25일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너희 모두가 거룩한 삶에 마음을 기울이기 바란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너희의 생각과 말을 거룩한 삶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해 간다면 너희의 가정에는 한 단계 한 단계 기도와 성화애로의 결심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진실되이 살아 너희 스스로를 물질에 얽매이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하여라. 너희의 인생은 한송이 꽃처럼 허무하게 지나가버림을 잊지 말아라.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착한 의견의 어머니께 의탁하며 드리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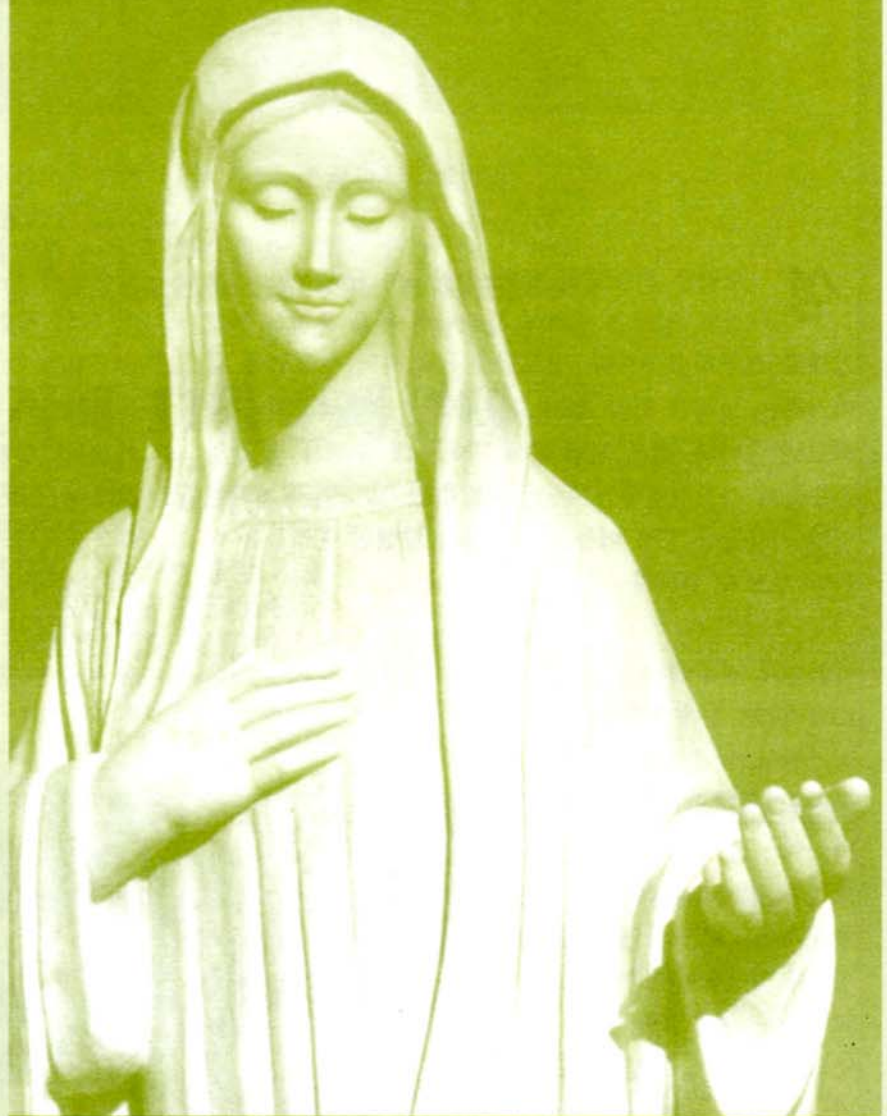
착한 의견의 어머니, 저는 지금 어머니의 사랑에 의지하여 저를 괴롭히는 갖가지 근심 걱정들과 온갖 회의와 의심들을 어머니 당신께 모두 털어 놓으렵니다. 스스로도 모르는 길, 제가 아는 사랑스런 사람들과, 책임져야 할 죄과들,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손해, 짜증스런 일들, 저의 모든 의욕과 애착, 저의 충고와 제가 보살펴야 할 일들, 잊어버린 일과 간직하고 있는 일들, 저의 탐욕과 포기, 침묵과 외침, 이 모든 하찮은 일에 너무 자주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으니 지금껏 제가 방관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일 모두를 착한 의견의 어머니이신 당신께 온전히 맡기오니 어머니, 굽어 살펴 주소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성모님, 당신은 착한 의견의 어머니이니 길 잃고 방황하는 저희를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부드러운 당신 손길에 두려움 없이 저를 맡기오니 저를 받아주셔서 당신 아드님 가신 길로 데려가 주소서.

메주고리예

Medjugorje

제9호

September,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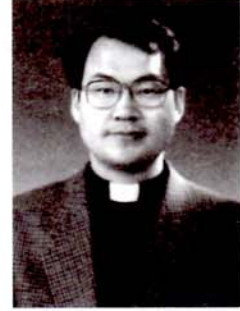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아드님을 향하여 타오르는 당신의 그 지극한 사랑보다 더 큰 열정을 저희가 어디에서 찾으리이까! 지극한 고통에 시달리시는 아드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으나 가슴 깊이 새기셨나이다. 어머니께서는 또한 온몸에 깊은 상처를 입고 기진하여 끌려가는 아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였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 밑에서 계셨나이다.

< 이하의 내용은 본지 10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

박해시대 순교자들의 성모 신심



여진천 본시아노 신부
원주교구

성 모님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여 구세주를 낳으셨고, 일생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며 성모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은 한국 초기 교회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짧은 지면 속에 박해시대 순교자 및 신앙선조들의 성모신심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몇몇 기록들을 통해 이들의 성모님께 향했던 흔적들을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1791년에 전주에서 순교한 권상연 야고보는 윤지충 바오로와 함께 참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맞은 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도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고, 둘러서있던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을 부르며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의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공경의 구체적인 신심행위로 목주기도를 자주 바쳤습니다. 이때 구경꾼들이 “참 이상한 일이군, 죽는 것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형장으로 가는군.” 이에 그는 “그건 오늘 하느님 곁으로 가서 끝없는 복을 누리게 되겠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장에서 그는 “기도를 마치지 못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요.” 라고



“참 이상한 일이군, 죽는 것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형장으로 가는군.” 이에 그는 “그건 오늘 하느님 곁으로 가서 끝없는 복을 누리게 되겠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장에서 그는 “기도를 마치지 못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요.” 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마친 후 침착하게 그의 제헌을 완성하여 주는 칼날을 받았습니다.

목주기도와 함께 1850 년대의 신자들에게는 성물과 성화가 신앙 생활의 중요한 수단 이었습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스승 신부에게 보낸 서한(1850.10, 1857.9)에서 “신자들은 성물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불같습니다. 상본이나 고상이나 성패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성물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꼭 필요한 전재산을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선뜻 내놓습니다. ...

교우들의 눈에 점잖게 보이며 될 수 있는 대로 얇은 종이에 색채없이 잘 그린 조금 큰 상본을 보내주십시오. 성모님 상본을 많이 보내주시고 다른 성인들의 상본은 조금씩 보내주십시오. ... 또 작은 십자가와 성패 등을 보내주시되 목주는 보내시지 마십시오. 목주는 조선 교우들도 아주 잘 만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신자들은 목주를 만들어 가며 이 기도를 즐겨 바쳤던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한문 서학서들과 한글로 번역 필사된 성모님에 관한 서적들을 탐독하였습니다. 책들은 ‘목주신공’, ‘목주신공 규정’, ‘성모매괴’, ‘성모 매괴경’, ‘성모님주 목상’, ‘성모성

월', '성모경' 등 이었고 이러한 책들은 널리 읽혀졌습니다.

당시 성모 신심에 관한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성모성심회'는 1836년 프랑스에서 창설된 신심단체로서 성모성심을 특별히 공경하고, 성모성심의 전구를 통하여 죄인들의 회개를 하느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는 신학생 시절 스승 리브와(Libois)신부와 함께 이 '성모성심회'에 가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리브와 신부는 1843년 6월에 쓴 편지에서 "그의 덕행과 재능으로 조선에 큰 희망이 되고있는 조선인 학생으로 이름은 최양업입니다. 각자의 입회 허가서를 외방선교회 신학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제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블뤼(Daveluy) 신부는 그동안 성모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자 파리에 본부를 둔 성모성심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1846년 11월 공주 수리치골에서 '성모성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성모성심회'는 널리 보급되어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831년 조선교구가 설정되었어도 북경교구의 주보이신 '성 요셉'을 모셔왔는데 제 2대 조선 교구장 앙베르(Imbert) 주교는 1838년 12월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조선교회의 수호자로 정해줄 것을 교황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북경교구 주보성인이신 '성 요셉'과 함께 모신다는 조건으로 이 요청을 승인하였습니다. 1861년 베르뇌 주교는 조선 교구를 8개 구역으로 나누면서 그 중 7개 구역을 성모 축일과 관련된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후일 1954년 성모의 원죄없으신 잉태 교리 선포 100주년을 맞아 비오 12세는 성모성년을 선포하였는데, 이 때 한국교회는 1954년 10월 10일 서울에서 3만 명의 신자가 모인 가운데 한국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초기부터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갖고 실천하였습니다. 묵주를 만들어 가며 묵주기도를 바쳤고, 일상에서 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의탁하였습니다. 신심의 증진을 위해 성모님에 관한 책을 읽고 필사해 나누었으며, 신심단체에 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교회 차원에서도 성모님을 한국교회의 수호자로 모시면서, 한국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하기도 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의 후손인 우리도 순교자들처럼 성모님을 공경하며, 성모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었으면 합니다. **M**

메주고리예를 다녀와서 (2)

아! 여기 이곳은 기도와 회개의 땅
세상 눈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삶을 짓는 곳이라

자그마한 촌락
그곳은 어느 시골 동네
민족간 전쟁을 치른 후
이제는 평화가 숨쉬는 땅

말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긴 역사의 흐름 속
아픈 자국을 만들고
눈물 흘리며 멎은 상처를 안고 부수며
오늘에 이르렀던가

어쩔 여기는 초라하기까지한 땅
그러나 밤낮없이 천상임마 찾아나서는 순례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총내려
살며시 미소피는 내적 환희

만나는 사람
지나는 길손마다
내적평화로 물들어 가고
어느 새 회개하는 피어난 아름다움이 터를 닦는 곳

메주고리예
하늘빛과 그림자
맞닿은 듯
네가 있음으로 마냥 좋은 곳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보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삶인지를
조용히 침묵속 기도하련다.

하늘나라 향한 여정
함께 갈고 닦아
서로 힘되고 기뻐되어
평화의 선물 나누며
우리게 주어진 길 가련다.

-2000년 7월 11일 - 정토비아 / 프란치스코회 수사 신부

스베토잘 크랄레비치 신부와 이반코비치의 인터뷰

1983년 2월 발간



웨인 와이블

루터파 교회의 신자이며 신문사 발행인, 컬럼니스트로 활동하던 웨인 와이블 씨는 성모님께서 발현하고 계신 메주고리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중 강한 내적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 전파에 헌신하게 되면서 '메주고리에' '선교사명' '메주고리에 추수' 등의 책을 썼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영문판 메주고리에 소식을 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은 웨인 와이블씨가 1985년 12월 4일부터 발간한 타블로이드 요약 판에 게재하였던 기사로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머틀비치 지방 신문에 6개월에 걸쳐 개별적으로 발간된 것을 본지에서 계속하여 번역문으로 소개합니다.

<번역 / 조규방 줄리엤타, 그레이트넥 본당>

스베토잘 신부: 이반카, 그날 (1981년 6월 24일) 미리아나와 산책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반카: 우리는 함께 정기적으로 그 근처를 산책합니다. 그때는 저의 집에 함께 있다가 산책하기로 했던 겁니다.

신부: 미리아나 말고 다른 동행자는 없었습니까?

이반카: 처음엔 우리 둘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양떼를 집으로 몰고 오는 마리아의 동생 미르카를 만나, 함께 가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신부: 그래서 미르카와 함께 당신 둘은 양떼를 데리러 갔군요?

이반카: 처음에는 나와 미리아나가 들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제가 언덕 쪽을 어쩌다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언덕위에서 밝게 빛나는 광채를 보았습니다. 빛나는 광채 속의 성모님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래서 미리아나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좀 봐,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셨어!” 미리아나는 내가 농담을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대꾸했지요. “성모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나실 리가 없어.” 그녀는 내가 가리키는 곳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계속 마을로 걸어갔습니

(4) MEDJUGORJE

다. 미르카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르카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 좀 도와줘, 양떼를 집으로 몰고 와야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던 길을 되돌아 들판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셋이 모두 성모님을 보았어요. 우리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비스카와 이반, 그리고 또 다른 이반도 우리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그렇다면 첫날에 이미 성모님을 두 번 보았군요?

이반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미리아나와 제가 마을로 돌아올 때이고, 두 번째는 미르카도 함께 양을 데리러 갔을 때입니다.

신부: 최초로 성모님을 뵈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반카: 접니다.

신부: 그 분을 보았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반카: “미리아나야, 저기 좀 봐. 성모 마리아님께서 나타나셨어!” 라고 했습니다.

신부: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어디로 갔지요?

이반카: 미르카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 집 앞에서 양떼를 몰고 오는데 도와 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언덕을 지날 때 나는 성모님을 또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기예수님을 팔에 안고 계셨어요. 미리아나와 미르카도 함께 보았습니다.

신부: 성모님을 만나 보았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이반카: 이 세상 모든 것이었습니다!

신부: 당신이 성모님을 뵈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에게는 당신의 말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반카: 나는 지금과 똑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성모님

부르심을 받고

과 정신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대화한 것입니까?

이반카: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신부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말합니다. 물론 그 분의 목소리나 말씀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려왔습니다.

신부: 성모님께 무슨 부탁같은 것을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반카: 처음에는 나는 어린 다니엘을 위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 성모님께서 무어라 하셨습니까?

이반카: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답하셨습니다. “강한 믿음과 기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부: “강한 믿음과 기도” 라니요? 무엇



을 위한 것입니까?

이반카: 치유될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신부: 당신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반카: 네,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언제나와 같았습니다.

신부: 무어라 하셨던가요?

이반카: 나의 어머님께서서는 성모님이 계신 곳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부: 당신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위로하러 성모님께서 오신 것은 아닌가요?



위 : 웨인 와이블씨의 뉴욕 강연을 마치고..... 좌로부터 웨인와이블, 그레이트넥 성당 김한기 주임신부, 평화의 모후 센터 USA의 남그레고리오 형제. 아래 : 청소년을 위한 강연회.

이반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많은 사람들 중 왜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최고의 사람만 찾으시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 성모님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보내지는 것입니까?

이반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신부: 메시지의 내용은 ?

이반카: 평화, 변화, 단식, 보속, 회개, 참회, 기도입니다.

신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

이반카: 평화입니다.

신부: 왜 하필 평화이지요?

이반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평화 속에서 살면 도된 일이 가능하니까요.

신부: 당신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반카: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기도 일곱 번과 사도신경을 바치고 정오에는 삼종경을 바칩니다. 저녁에는 주의 기도 일곱 번과 사도신경을 바치고 어떤 때는 묵주의 기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저녁 기도를 드리지요.

신부: 성모님께서서는 여러분 여섯 명 모두에게 수도원을 추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반카: 그분은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리 하라고 하셨지요. 성모님은 신앙과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신부: 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리셨는지요?

이반카: 지금의 제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수도원에

부르심을 받고

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양떼를 키우면서도 나는 수녀들 못지 않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부: 당신이 미래에 대해 알고있는 바를 감안해 볼 때, 메주고리에의 성모님께서는 이 세계가 더욱 더 서로 사이 좋게 화해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까?

이반카: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큰 표징이 나타나면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이반카: 네, 때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신부: 그 위대한 표징은 곧 나타날까요? 아니면 좀 늦추어서?

이반카: 가장 알맞은 때에 나타나겠지요.

신부: 이반카,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행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은 없습니까?

이반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렵겠습니까? 그분께서는 내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힘이라도 주십니다.

신부: 당신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반카: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십사 하고.

신부: 그 외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반카: 나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그들도 확신하게 되지요.

신부: 그 말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을 기다리기가 힘들군요.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반카: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신부: 성모 마리아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반카: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느님은 계십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요.

신부: 성모 마리아를 적대시 하는 사람들이 성모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을까요?

이반카: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위대한 표징 말씀이십니까?

신부: 네

이반카: 그것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어떤 무기나 폭발물로도 그것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신부: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이나 성모님의 계획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이반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부: 그것은 성모님께서 그들보다 강하시다는 뜻입니까?

이반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 이십니다. 하느님 이십니다. 성모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반카: 내 생각으로는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징을 성모님께 구하면 그분께서는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그 표징을 주는 것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야 성모님께서 표징을 주시겠노라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신부: 그 말은 성모님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성모님께선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행하셔야만 한다는 것이군요!

이반카: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부: 훌륭한 신앙인은 서로 각자의 종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대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반카: 이 세상의 종교는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었든지 간에 모두 예수님에 의하여 수용되고 있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부: 그렇다면 믿는 자, 신앙인은 모두가 천당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반카: 그것은 신앙인 각자의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가에 달려 있겠지요.

신부: 그렇군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하여 한미디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한데요!

이반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성모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종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파하고 서로 적대시 하고 있습니다.

신부: 이반카, 여러 가지 대화와 증언을 해 주어 감사합니다.

<다음호에 제 5부가 계속됩니다.> **M**



성모님과 함께 성서읽기

한국 순교자 성월인 9월 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즉 기쁜 소식을 통독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약 1년간 (2001년 9월 ~ 2002년 8월) 신약성서 27권 모두를 완독하게 되는데, 하루에 약 2쪽에 해당하는 분량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약 5분정도 소요되는 이 분량은 독자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루함을 덜기 위해 성서가 배열된 순서에 따르지 않고 다음 순서로 다소 변경하며 읽을 것입니다. (마태 - 1, 2 고린 - 루가 - 사도 - 갈라 - 필립 - 1, 2 데살 - 필렌 - 마르 - 로마 - 에페 - 골로 - 히브 - 요한 - 1, 2 디모 - 디도 - 야고 - 1, 2 베드 - 유다 - 1, 2, 3 요한 - 묵시) 좋으신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성서읽기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목적 : 그리스도 신자로서 성서를 읽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자 그 자체가 신앙생활에 속합니다.

성서를 읽는 시간은 기도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소리내어 읽게 되면 읽는 과정 중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자신 안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따라서 성서읽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의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을 만나는데 도움을 받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방법 : 1) 매 번 읽기 전에 **“주의 기도, 성모송”** 으로 시작기도를 바치며 마칠 때는 **“영광송”** 을 바칩니다.
2) 매일 매일 꾸준히 읽습니다.

이왕이면 성서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일상 생활 중 조용한 시간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새벽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라면 우선 조용하고, 걸림새가 없을 것이며, 더 더욱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출발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루를 성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낮 시간대가 한가하다면 이때도 좋습니다. 이 여유로운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는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저녁 시간에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3) 성서는 눈으로 읽기 보다는 입으로 암송하는 방법이 바람직 하므로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성서는 글로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성서 속의 글자로 잠겨있던 하나님

을 소리로 재생해 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소리로 살려낼 때 무슨 도구를 이용할 까? 내 몸과 마음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떨려내는 (Trembling out) 것입니다. 나가는 도구 (내가 하나님을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를 이용하여 성서속의 글자를 하나님의 파동으로 떨려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리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내 안에 떨려 들어오게 (Trembling into)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내가 그 소리에 공명토록 하는 일입니다. 이때 떨려 들어 오는 정도는 떨려 나간 정도에 비례합니다. 온전히 떨려 나갔으면 온전히 떨려 들어오지만, 반만 떨려 나갔으면 반만 떨려 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떨려 나간 소리로 내 몸과 마음의 결이 변화되어 하느님을 닮는다면 이 얼마나 좋은 성서읽기를 통한 관상기도 이겠습니까.

4) 그날의 하느님 말씀에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으면 화살기도를 만들어 바치면 좋습니다.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오 복음 읽기를 위한 길잡이

신약성서의 맨 첫번째 자리에 놓인 마태오 복음서는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서 권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중요한 책입니다. 이 복음서는 점차 조직화 되어가는 교회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제자상은 어떤 것이며, 참된 형제애는 어떠한지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여러가지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향과 함께, 교회 존속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오 복음서는 교회의 존재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를 교회를 위한 책이라고 합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예수님의 활동을 갈릴래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정, 예루살렘 등으로 지리적인 배경에서 말해주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비슷한 말씀이나 주제들을 한데 모아서 전하는 집성문을 만들어 전하는 잘 정돈되고 잘 조직된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약의 율법에서 가르치고 예언자들이 전해주었던 대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참 메시아 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가?

마태오 복음서는 모두 28장입니다. 다섯 편의 설교 (5-7장 ; 8-9장, 10장, 13장, 18장)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짜임새 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내용에 따라 크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지 하는가” 라는 두 주제에 맞추어 쓰여져 있습니다.

2) 누가 썼는가?

(8) MEDJUGORJE

교회는 전통적으로 열두 사도 중의 하나인 마태오가 썼다고 믿어왔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편의상 마태오라고 봅니다.

3)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는가?

이 복음서의 저자는 유대교 풍습이나 분위기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복음서를 집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 언제 어디서 쓰여 졌는가?

대략 80-90년 경 시리아 지방에서 쓰여졌다고 봅니다.

5) 어떤 구조로 쓰여 졌는가?

마태 1장-2장(전사)

예수님의 공생활 이전의 먼 과거를 전해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의 수태와 탄생, 동방박사의 방문, 에집트로의 피신 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3장-4장 11절 (활동 준비기)

예수님의 공생활 서막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요한 세례자의 활약,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이야기 등이 포함됩니다.

마태 4장 12절-18장 (갈릴래아 활동기)

예수님이 고향 나자렛을 떠나 즈블룬과 납달리 지방에 있는 갈릴래아 호숫가 가파르나움에서 주로 행하신 공적 활동에 관한 보도입니다. 여기에는 5-7장의 산상설교, 7장 12절의 황금률, 8-9장의 기적 이야기들, 10장의 파전설교, 13장의 비유설교, 18장의 공동체 설교 등이 있습니다.

마태 19장-20장 (예루살렘 상경기)

예수님이 갈릴래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의 일들을 엮은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21장-28장 (예루살렘 활동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부터 부활하셔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내신 때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21장-25장의 수난 전까지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부분과 26장-28장의 수난부터 부활,

제자들의 사명 부분입니다. 이중 예수님의 수난 이전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으로는 21-22장의 성전에서의 예수님, 23장의 율사들과 바리사이파들을 책망하는 유대교 단죄 설교, 24장-25장의 종말 심판 설교 등이 있습니다.

9월 성서 읽기표

날짜	요일	장 절	check
1	토	마태 1 - 2,12	
2	일	2, 13 - 3, 17	
3	월	4, 1 - 5, 12	
4	화	5, 13 - 5, 37	
5	수	5, 38 - 6, 21	
6	목	6, 22 - 7, 20	
7	금	7, 21 - 8, 22	
8	토	8, 23 - 9, 26	
9	일	9, 27 - 10, 25	
10	월	10, 26 - 11, 11	
11	화	11, 12 - 12, 14	
12	수	12, 15 - 12, 45	
13	목	12, 46 - 13, 30	
14	금	13, 31 - 13, 58	
15	토	14, 1 - 14, 36	
16	일	15, 1 - 16, 4	
17	월	16, 5 - 17, 8	
18	화	17, 9 - 18, 14	
19	수	18, 15 - 19, 12	
20	목	19, 13 - 20, 16	
21	금	20, 17 - 21, 17	
22	토	21, 18 - 21, 46	
23	일	22, 1 - 22, 46	
24	월	23, 1 - 23, 36	
25	화	23, 37 - 24, 31	
26	수	24, 32 - 25, 30	
27	목	25, 31 - 26, 16	
28	금	26, 17 - 26, 46	
29	토	26, 47 - 27, 10	
30	일	27, 11 - 27, 56	
31	월	27, 57 - 28, 20	

매일 읽고 읽은 날은 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읽기표 대로 성서 쓰기를 해도 좋습니다.



기쁨

고통과 슬픔은
당신께 나아가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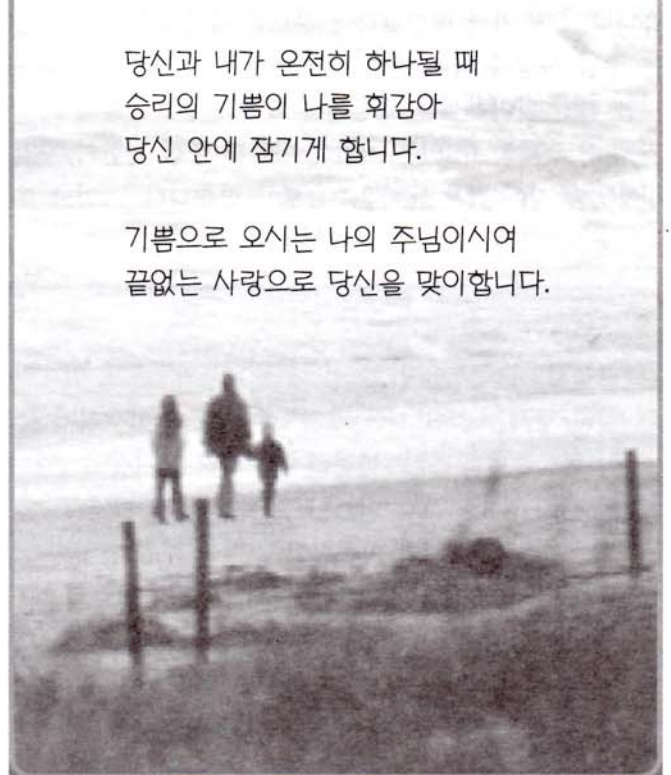
사랑과 희생은
당신께 안기는
기쁨의 은총입니다.

세속의 쾌락과 욕망에서 벗어날 때
모든 것을 초월한 천당의 기쁨이
강물처럼 물결쳐 흘러 내립니다.

두껍고 낡은 겨울옷을 벗고
가볍고 고운 봄옷으로 갈아입듯이
내 영혼이 죄의 죽음에서 벗어나
나르는 기쁨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과 내가 온전히 하나될 때
승리의 기쁨이 나를 휘감아
당신 안에 잠기게 합니다.

기쁨으로 오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끝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웨인 와이블씨 초청 강연회 에서

- G.A. 정 발바라 -

롱 아일랜드 그레이트넥 성당에서 웨인 와이블씨의 초청 강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드디어 ! 이제야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가 잠자고 있는 동부를 깨우시는구나” 하고 고대하던 기쁜 소식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레이트넥 성당에 도착하자 크지않은 공동체이지만 모든 주변 다른 공동체에서 모여든 봉사자들과 함께 성령을 가득히 받은 모습들이 특별했습니다. 연 이틀동안 이어지는 행사에서 주임신부님과 손님신부님들의 표정 하나 하나까지 제겐 감동이었고 주도 면밀하게 조직적이고 일치된 진행에서 모인 사람 한사람 한사람 가슴에 성모님을 통한 뜨거운 예수님 사랑이 물결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가운데 모셔진 메주고리에 성모님을 바라보는 저의 눈에 성모님께서 미소지으시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하여 기쁨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웨인 와이블씨의 강연도 너무 감동적이 었지요.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성체께로 다가 오게 하시고자 그렇게도 오랜동안, 20년을 오셔서 호소하고 계신다고 강조했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 자신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를 통해 불붙는 주님 사랑에 빠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웨인 와이블씨를 초청해서 메주고리에 사랑의 메시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한기 주임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마음속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

요일 밤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한 자매님 댁에서 토요일 밤을 지내고 일요일 아틀란타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평화의 모후 센터 USA 메주고리에 1차 순례 동기 자매님 한 분이 자기 집에 함께 가기를 간곡히 권고 하기에 하루밤 페를 끼치기로 하고 따라갔습니다. 서구식 예쁜 콘도에 들어서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식탁에 음식 준비가 된듯한 착각에 자정이 지난 이 시각에 웬 음식을 ? 자세히 보니 커다란 장방형 식탁에는 6권인가의 성서가 양쪽으로 나란히 펼쳐져 있었고 정면에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때 자매님이 말해주었습니다. “메주고리에에 다녀와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옆집에 사는 딸네 식구와 매일 저녁 함께 모여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살기위해 가정 기도를 드리고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의 머리 속에는 메주고리에에서 봉사하던 그 자매님의 모습과 지난 2일 동안 행사중에 다른 봉사자들과 뛰어 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메주고리에의 좋은 열매들, 수확의 계절이 오면, 당신의 어머니를 메주고리에에 그토록 오랫동안 보내 주셨던 자비의 주님께서 메주고리에의 알찬 열매들을 돌아보시며 흐뭇해 하실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틀란타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눈을 감고 기적 같은 많은 일이 일어났던 이번 짧은 여행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묵주를 손에 꼭 쥐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주님과 사랑과 순명의 모범이신 어머니 성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 표지에서 이어지는 내용 >

그분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시어 피땀으로 얼룩진 아들 예수님을 품에 안고 탄식하신 이여 ! 부드러운 당신 손길에 두려움 없이 저를 맡기오니 저를 받아주시어 당신 아드님 가신 길로 데려가 주소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맑고 깨끗하며 선하시고 진실하시니 언제나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매일이 새롭게 되기를 청하오니 어머니, 저를 떠나지 마소서. 죽음에 이르러 제 눈이 흐려질 때까지.

모든 시련 이겨내어 아름답고 소박한 기쁨의 꽃송이를 당신께 드리오니 축복해 주소서. 또한 굳게 의지하며 청하오니 어머니, 저를 떠나지 마소서. 죽음에 이르러 제 눈이 흐려질 때까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온갖 근심 걱정이 저를 괴롭히나 저는 믿고 바라오니 어머니, 저를 떠나지 마소서. 죽음에 이르러 제 눈이 흐려질 때까지. 이제 곧 죽음이 다가와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시면 저는 아쉬울 것 없나이다. 어머니, 저를 떠나지 마소서. 죽음에 이르러 제 눈이 흐려질 때까지. 아멘 - '기도의 보화' 中에서 -

내 마음의 메주고리에

- 김춘희 아가다 / 몬트리얼 -

나와 성모님과의 사랑 이야기는 아무래도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성모님의 발현이라는 책을 사들고 집에 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이 책은 나와 성모님과의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해 준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메주고리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또 한편 메주고리에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정말로 굴뚝보다 더했습니다. 형편이 피면 가지.... 그리고 용기도 줄고 그리고 16년이 흘렀습니다. 성모님을 뵈고 싶은 마음은 이제는 그리움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앓았던가 싶습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을 알고 난 후 10년이 흐르고 난 1994년이 되던 해, 성모님은 나의 그리움을 모른체 하지 않으시고 나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을 순례자들의 길잡이로 써주셨습니다. 순례자들 중에는 마음과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나의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이 그리웠고 그곳에 가지못한 것이 죄스럽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1996년 이었습니다. 그 해 5월

첫 주에 우리 평화신문 성지순례단이 그 해의 첫 순례자로 꺄뻑의 성모성지를 찾아갔습니다. (꺄뻑의 성지순례는 공식으로 해마다 5월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엄청난 기적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미사전 30분을 남겨놓고 늘 순례에서 그렇듯이 공백시간을 이용하여 십자가의 길을 돌며 성전 마당을 급히

가고 있던 중에 우리 일행들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에 해가 저서 내려가야 하는데 해가 떠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검은 구름으로 십자모양이 그려지다가 구름은 뒤로 가고 해가 춤을 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해의 (육안으로 톨바로 볼 수 있었음) 우측 하단에 마치 가는 펜으로 그린것 같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목격하며 우리 한국인 순례자들은 감격의 함성을 울리고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외국인 캐나다인들에게 “저것

좀 보세요. 해가 돌구 있어요.” 하고 내가 말했더니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아무런 감동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보는 해가 안보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해는 질 줄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순례 안내자 라는 신분을 인식하고 “다 성당으로 들어가세요. 성체 야 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 성체를 모시러 성당으로 갑시다.” 춤추는 햇님을 뒤로하고 미사에 참석하러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우 인솔 신부님은 강론에서 “나는 기적같은 것을 믿지 않았는데 오늘 내 눈으로 기적을 확인했다.” 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떤 신자는 자기의 죄가 엄청나게 컸는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신자가 메주고리에에서 촬영한 사진 - 성모님의 모습을 구름 속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나는 지난 부활절 다음 주에 메주고리에를 다녀 온 후,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이 순간 까지도 왜 내가 그때 해가 돌아가는 기적을 볼 수 있었는지를 지금까지 잘 몰랐었습니다. 꿈에도 그리운 메주고리에 성모님이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정을 살피 주시고 우리가 사는 꺄뻑, 우리 순례자 일행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 오셔서 해의 기적

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주고리에 정작 찾아갔을 때는 이미 메주고리의 기적이 나에게 다 이루어졌으므로 아무것도 보여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메주고리에 있는 동안 프란치스칸 수도원에 계시는 요조 신부님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거기서 성모님이 얼마나 겸손하신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조 신부님의 통역을 맡아 주신 분이 우리들에게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곳을 가지못한 이 죄인을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려고 오히려 우리가 그 곳에 가기 전에 우리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시는 그 겸손의 덕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녀의 마음을 살피주시고 거북스럽지 않게 해 주시는 분,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슬퍼하지 않게 해 주시려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당신이 받아 주시고 덮어 주시는 분, 이렇게 좋은 어머니께 어떤 사랑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길 안에서 살수만 있다면 메주고리의 순례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당에서는 메주고리를 다녀온 사람들 끼리 매주 토요일에 만나 묵주 15단 기도모임을 하며 우리는 메주고리 순례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묵주 기도를 하며, 성모님의 지향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함께...

내 친구들과 메주고리에

- 시애틀 타코마성당 박영화 안젤라 -

이번 메주고리순례는 정말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메주고리에 가기 까지의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돌아오기 까지도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제 자신을 발견하였고, 기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2월에 메주고리에 먼저 다녀왔습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의 그레고리오 아저씨께서 이번 여름에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다시 메주고리에 간다는 기쁨에 흔쾌히 허락했지만, 현실에 있어서 저는 이번

가을에 12학년이 되는 수험생이어서 약간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준비로 바쁘지만 모든 것을 뒷전에 두고,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또는 미국에 산지 오래된 친구들은 도대체 메주고리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무슨 성모님이 나타나시냐고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이 좋은 곳, 평화로운 곳을 모르다니 말합니다. 친구들의 마음은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가기 전에 저는 또 체험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초대하신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메주고리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인지 저는 저도 모르게 많은 기대감을 친구들에게 주었나 봅니다. 메주고리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계속 실망하고 “이 시골에 왜 우리를 오게했나, 이곳이 무슨 유럽이냐?, 재미없다” 며 저에게 투정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들로 인해 제 믿음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 성모님께서 저의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은 듯 했고 제 기도는 점점 나약해 졌습니다. 친구들과 말도 하지않고, 저는 혼자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길은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은 보지도 못하고 오직 친구들 만을 비난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으니, 당연히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가기 이틀 전날 Youth Festival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도 않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아시스 수도원의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큰 십자가 상이 있는 그곳은 저희 숙소와는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강한 햇볕 아래를 걸으며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느님이 원망스럽고, 정말 그분이 계실까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성당에 도착하니 성당 안에는 예수님의 몸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성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체조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기억을 되새기며 마음먹고 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메주고리에는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자고 ...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었고 “I don't know....” 라고 하며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열려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그들이 당신께로 오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애들을 당신도 만나뵙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라고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토라진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지, 프로그램 참여에 이끌 수 있을지 저는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의 자존심때문에 그들과 말 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들과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제 말도 듣지 않고, 저를 비난하는 애들과 화해하라고요?”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잔잔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화해는 못해도 무엇인가 자신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다시 평화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화의 오아시스 성당 옆에는 엘비타 수녀님께서 세우신 마약환자들의 공동체인 시나콜로 라는 재활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잠깐 들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성당에 큰 이콘이 걸려있습니다. 아담의 팔과 한팔밖에 없는 이브의 손을 잡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순결함을 상징하는 하얀 사제복을 입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어둠속에 빠진 저희들을 위해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콘을 보며 저는 예수님이 저희들의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 정말 그분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타락에 빠져있는 나와 내 친구들..... 그 이콘을 보며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악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돌아와서 친구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통해 제 자신을 보며 저는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알게된 저는 정말 하느님의 도구로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었고, 진실한 대화를 통해 그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는 친구들을 보니 이민생활에서, 또 문화가 다

른 부모님 밑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 또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친구들은 많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을 지라도 같은 상처와 아픔을 체험했고 원하는 것이 같은 서로를 보고 친구들은 마음을 열고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아픔은 자신의 아픔이었기에 서로 꼭 껴안고 같이 울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 특히 가족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받고 싶은, 받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쏟아주는 부모님들의 사랑때문에 더 방황해야 했던 친구들은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주며 또 같이 기뻐하며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성모님께서 같은 친구들을 통하여 아픈마음, 방황하는 마음을 치유시키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도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신지도요. 우리들은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말

로만 듣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또 성모님께서 함께하고 계심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잘해보고싶은 것이 그곳에 다녀온 모든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전에 체험한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뀌어진 친구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뿌듯했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직까지 어색하겠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은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예수님,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아픔으로, 서로 치유시키며...

- 남 그레고리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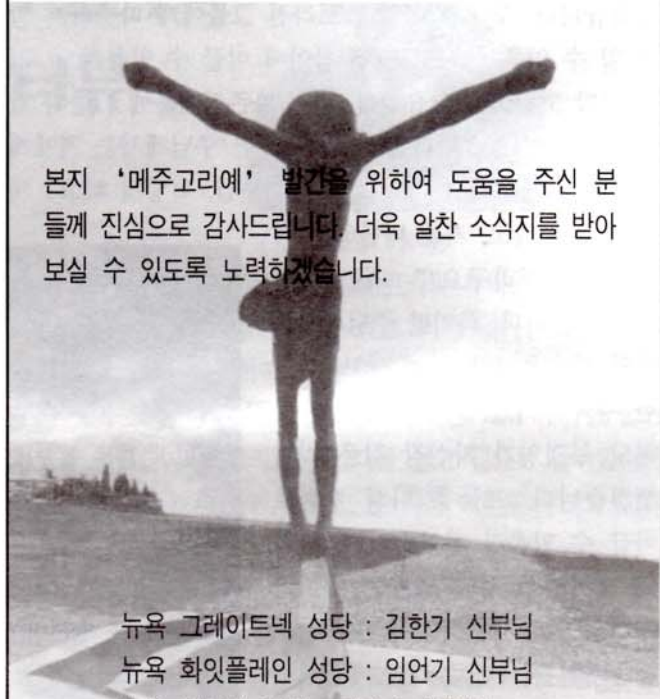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려움이 생길때마다 성모님께 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루 하루가 지나면서 아이들의 손에는 목주가 쥐어져있고, 목에 걸린 십자가는 그 아이들에게 무척 소중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청소년 순례 때에는 특별히 청소년들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에 성모님의 사랑과 내적 치유의 은혜가 풍성한 때였습니다. 성당 한구석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성체조배를 하는 아이들, 성모님의 평화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친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아이들, 친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아이들,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서 우는 아이들, 12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열기를 피하여 새벽과 밤에 십자가산과 발현산을 올라가며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뉘우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아이들 이 갖고있는 서로의 아픔을 통하여 서로를 치유시키며 그들의 허전한 마음을 평화와 사랑 그리고 신뢰로 채워주셨습니다. 성모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각 지역 평화의 모후와 디락방 기도회 연락처

- 뉴타운스퀘어 한인천주교회: 610-353-9577 (이스테파노)
- 필라델피아 한인성당: 215-721-3070 (황암브로시오)
- 아틀란타 한국순교자천주교회: 678-547-3740 (김데레사)
- 미네소타 성김대건한인천주교회: 651-450-7452 (최베드로)
- 뉴욕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 718-263-3805 (이유스티나)
- 뉴저지
- 시애틀 그리스도의 평화천주교회: 206-362-2278
- 캐나다 몬트리올 : 514-694-5574(최준호)

많은 분들이 각 지역 기도회에 관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 모임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본당의 메주고리에와 디락방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본지 '메주고리에' 발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알찬 소식지를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뉴욕 그레이트넥 성당 : 김한기 신부님
- 뉴욕 화이트플레인 성당 : 임언기 신부님
- 뉴욕 맨하탄 성당 : 김기수 신부님
- 로스엔젤레스 : 김상배
- 로스엔젤레스 : 김철석
- 한국 평택 : 장베로니카
- 뉴욕 퀸즈성당 : 성령기도회
- 버지니아 : 김안나
- 버지니아 : 김아네스
- 한국 : 김 젤뚜르다
- 콜로라도 : 이세실리아
- 시애틀 : 이수산나
- 뉴욕 퀸즈성당 : 황요셉
- 뉴저지 : 권마리안나
- 달라스 : 이비오
- 로스엔젤레스 : 임실비아
- 미네소타 : 최종권
- 뉴저지 : 임세레나
- 밴쿠버 : 한마리아
- 아틀란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노인기도회
- 필라델피아 평화의 모후 기도회 : 황암브로시오

메주고리에 10월 순례 안내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려오시도록 그분께 기도하는 일이다
누구든지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변화될 것이다.

순례 일정 : 2001년 10월 17일 부터 25일까지 (8박9일)
지도 신부 : 왕영수 (부산교구)
순례 경비 : \$1290 - 뉴욕 JFK 출발 기준
연 락 처 :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 Fax.(631)367-6194

메주고리에 11월 순례 안내

순례 일정 : 2001년 11월 1일 부터 9일까지 (8박9일)
지도 신부 : 정건석 신부
순례 경비 : \$1400 - 휴스턴 출발 기준
문 의 처 : 지 베드로 Tel. (713)466-6957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 Fax.(631)367-6194

평화의 모후 센터 USA 에서는 성모님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쇄신을 위한 피정과 순례만을 하고 있으며 일반 관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춘 2인 1실, 또는 3인 1실과 함께 1일 2식(아침, 저녁)을 제공합니다.
- 메주고리에 순례 일정에는 유럽에서 긴 역사와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곽도시로써 아드리아 해안가의 아름다운 경치로 널리 알려졌을 뿐만아니라 가톨릭을 고수해 오며 1700년 동안이나 썩지않고 있는 실반 성인의 기적의 유해가 있는 유명한 신앙의 유적지인 Dubrovnik성지순례와 Split에 있는 성지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순례를 원하시는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이상의 그룹은 원하시는 날짜에 순례일정을 정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센터 USA에서는 세계 곳곳에 발현하시어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성모님의 소식지를 매 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와 성모님에 대한 서적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에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가 1, 2, 3편의 테잎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 매 월 순례가 있으니 남 그레고리오 형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문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문들은 매 월 순례 때마다 목격증인 비스카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른 우편물과의 분류를 위하여 편지 봉투에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라고 꼭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회원모집 안내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에’ 100부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시고자 하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주문량

- | | |
|---------------------------------------|--------------|
| (1) 25부 <찬조금 \$25 + 우송료 \$5> | 합계 \$30 () |
| (2) 50부 <찬조금 \$50 + 우송료 \$5> | 합계 \$55 () |
| (3) 100부 <찬조금 \$100 + 우송료 \$10> | 합계 \$110 () |

개인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가입란에 기재해 주시거나, Fax로 정확한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에 ✓해 주시고 수표 발행은 QPC U.S.A.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인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주문처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